

이번주 베스트불서 1위는…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법사(前 홍익대 공대 교수)가 지은 이 책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유심조, 공(空), 불이(不二) 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한 체험을 통한 설법집이다.

난민이 된 청년들, 노인 빈곤층, 고독사 증가, 인구감소로 암울한 미래, 대량실업과 해고 위기 등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은 현 시대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한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27 ~ 8/2 운주사 집계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도표로 읽는 경전입문	정운스님/배종훈	민족사
2	조용헌의 인생독법	조용헌	불광출판사	7	'초기불교 열반이란 무엇인가 (열반, 납바나, 니르바나)'	정명스님	푸른향기
3	그대는 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행복한 첫걸음)	천룡스님/효석스님	사유수	8	골프 공과 선사 (불교의 공에 답하는 골프 이야기)	도범스님	조계종출판사
4	요가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9	"달마어록 (오성론, 혈맥론, 파상론, 이입사행론, 안심법문)"	성열스님	문화문고
5	카르마 100일 (보현스님의 행복 체크카드)	보현스님	부처님마을	10	위빠사나 명상일기	영선	운주사

꺼지기 쉬운 빛 찰나적 깨달음 소설화



꺼지기 쉬운 빛

이갑숙 지음/얘기꾼 펴냄/1만 35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고통서 빠져 나오는 방법은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뚫고 나오는 것이다"

제 2회 법계문학상 수상작 〈꺼지기 쉬운 빛〉은 삶의 빛을 발견하기까지 지난한 여정을 거친 주인공이 마침내 빛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이야기다. 빛은 삶의 목표이며 희망이다. 사막과도 같은 삶, 칠흑같은 밤길을 걷다가 저 멀리서 흐릿하게 빛나던 불빛을 대면했을 때 밝음의 순간은 오래가지 않는다. 누군가는 그 밝음에 익숙해져 당연시하고 또 누군가는 절대로 잊지 못할 고마운 것으로 기억한다. 청춘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살아온 주인공이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발견한 그 빛, 그것은 무엇이며, 그는 어떻게 꺼지기 쉬운 빛을 지켜갈지 작가는 이야기한다.

법계문학상은 운문사를 한국 최고의 비구니 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키며 비구니 교육과 권익증진에 평생을 바친 법계명성 스님의 서원으로 제정된 불교문학상이다. 불교와 문학이라는 두 개의 명사 중에서 선행된 명사, 불교는 문학을 수식하는 용어로 쓰인다. 그러므로 〈꺼지기 쉬운 빛〉을 단순히 불교적 소재를 다룬 종교소설로 분류할 수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관계 맺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인생 후반에 들어선 한 남자가 써 내려간 자기 고백이다. 전문적인 글쓰기 교육 한 번 받은 적 없는 작가는 5년간 공을 들였고, 그 결과 법계문학상이라는 작지 않은 영예를 얻었다. 그렇다면 쟁쟁한 후보작들을 뒤로하고 우리가 이 작품에 주목하게 하는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 작가는 유년을 가난에 찌든 시기였다고 회상한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아픔을 겪고, 어린 시절을 함께한 두 친구와의 우정은 어그러져 돌이킬 수 없는 오해와 질투로 변질됐다. 세속적 욕망과 비루함으로 무장한 채 살기 위해 달려왔던 길을 이제야 뒤돌아본다. 그것은 무명 속을 헤매던 어둠의 세계였다. 더 이상 미래는 없어보였고, 주변이 온통 어둠이었다고 작가는 말한다.

"고통서 빠져 나오는 방법은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뚫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한 어둠과 고통에 굴하지 않는 용기가 이 책을 끌고 가는 힘이었다.

고통을 마주한 그는 자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린다. 자신이 누구이고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끝없이 찾아다니던 중, 먼 나라로 떠난 트레킹에서 드디어 한줄기 빛을 발견한다.

"짙은 안개를 뚫고 한줄기 빛이 내리비치더니 안개 너머로 잉카의 유적이 드디어 속살을 드러냈다. 아, 순간적으로 울림이 왔다. 숨이 멎었다. 생각이 멎고 마음이 정지되는 무념의 순간이었다. 깨달음이라기엔 너무 얕은, 그러나 어떤 알아차림이 한줄기 빛과 함께 내게 다가왔다. 맑고 투명한 빛이었다. 해맑은 어린 아이의 눈빛 같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빛이었다.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났다."

그가 찾은 빛은 우리가 그토록 동경하는 순수한 상태의 빛, 모든 것이 분별심으로 갈라지기 이전의 원초적 상태의 빛이었다.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그래서 낯설기도 하고 낯설지 않기도 한 태초의 빛. 무명을 벗겨내는 지혜의 그 빛을 그가 찾아내고야 만다. 그것은 깨달음의 빛이었고 그 빛을 통해 그는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꺼지기 쉬운 빛. 깊은 바다 같은 평온함이거나 어머니 품속 같은 아늑함에 전율하던 순간도 잠시, 그러한 깨달음은 찰나에 불과해 금세 꺼지기 쉬운 빛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

"그 빛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쉬이 꺼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온갖 환상이 주는 분별로 여전히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그러나 마음의 눈이 뜨이면 분별이 주는 무명에서 벗어나 그것을 이겨낼 것이라고. 그런 빛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늘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어느 하루는 이제, 여느 하루와는 다른 일상이 될 것이라고…"

'순간의 빛'이지만 그 빛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삶은 다르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우리의 인생은 빛을 찾아가는 끝없는 여정이며 우리 각자는 나름의 방법으로 깨달음의 빛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한다. 어리석음의 환영에서 벗어나면 깃털처럼 가벼운 자유가 찾아온다는 그의 말에 동의한다면, 그래서 '꺼지기 쉬운 빛'을 놓치지 않으려 오늘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 이 책을 펼쳐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 보아도 좋겠다.

장영우 평론가는 이 책을 이렇게 해설의 새로운 이정(里程)이 될지 또는 작품의 미숙성을 증거하는 지표로 지목될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소설에 주목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작품이 한국 불교소설의 유형화를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는 노력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교와는 특별한 인연이 없던 작중인물이 친구와 아내를 잃고 정신적으로 방황하다 사찰을 순례하며 차츰 마음의 안정을 찾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꺼지기 쉬운 빛'의 찰나적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이 다소 거칠지만 진솔하게 서술된 이 소설의 서사전략 또는 구성과 관련된다"라고.

이 책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던 것은 저자가 불법(佛法)을 만나 귀의했기 때문이다. 이 작가의 아내가 아니었다면, '절에 가자'는 아내의 그 말 한 마디가 없었다면 이 작가는 아마도 지금처럼 불법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다. 말 한 마디가 많은 불연의 씨앗이었던 것이다. 아내의 불연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그렇게 우리는 다 알고 사는 듯해도 정작 알고 사는 것이 없는 것이다. 각자의 삶이 누군가의 말 한 마디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모르고 사는 것이다. 이 책 속의 문장 하나하나 역시 누군가의 삶에서 소중하고 중요한 인연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많은 불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한편 경남 함안 출생인 저자의 불명은 덕산(德山)이다. 1975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30여 년을 공직에 몸담았다. 퇴직 후 늘그막에 글 쓰는 작업에 뛰어들었다. 2017년 법계문학상 공모에 장편소설 '꺼지기 쉬운 빛'이 당선되었다.



있는 그대로 나답게

도연 스님 지음/특별한서재 펴냄/1만 4천원

"자신 가치 발견하면 용기 생겨"… 카이스트 스님의 행복론

이 책의 저자 도연 스님은 '카이스트 스님'이라고 불리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계적인 물리학자를 꿈꾸며 KAIST에 진학했다가 1년을 공부하고 돌연 출가했다. 그리고 10년 만에 카이스트를 졸업했다. 도연 스님은 카이스트에서 공부하던 그 길에선 자신이 행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출가하여 탁발과 참선, 마음 챙김 명상을 중심으로 수행해 왔다.

이 책에는 그동안의 수행과 공부를 바탕으로 나답게 살고자 노력함으로써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 삶을 철학으로 진단하고 명상으로 치료하면서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에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한다. 책에 실린 성현들의 존엄한 가치와 철학적 개념을 곱씹고 사유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주체로서 나만의 철학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최고의 휴식인 명상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오늘 하루 좀 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지혜, 그리고 위로와 용기를 주는 책이다.

저자의 내공이 쌓인 책 속의 법문만 곱씹어도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듯 하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용기가 생깁니다. 살다 보면 나를 찾는 질문이 크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답을 구하면 됩니다. 빠른 게 좋은 것만도 아니고 느린 게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좋은 시기가 있는 것이겠죠. 적극적으로 나를 파고들며 본질에 대해 숙고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만의 철학을 갖추는 과정이고 명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철학이 진단이라면 명상은 치료 방법입니다. 철학적 개념을 통해 삶에서 당면한 고통의 문제를 알고 혜안을 얻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상과 수행을 통해 삶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 전체를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선오후수(先悟後修)라 하는데요. 먼저 이치를 안 후에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저자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만 명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우리는 이미 삶에서 명상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내게 생긴 문제를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명상을 하는 것이며, 그럴 때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강조한다. "우리는 존재만으로 완전합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나로 살기로 한 결심한 순간부터 몰랐던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라고 김주일 기자

安般守意經

선 수행자라면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할 선경禪經!

안반수의경

불교 수행의 근본이 되는 수식관을 상세히 설하고 있는 『안반수의경』과 지관쌍수의 수행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한 『도지경』을 상세한 주석과 함께 만난다!

안세고 漢譯, 석법성 역주 / 신국판 양장
240쪽 / 값 14,800원 / 운주사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찾는 수행!

위빠사나 수행의 방법론과 더불어, 저자가 그동안 위빠사나 수행을 해오면서 겪은 경험들과, 그 과정에서 느끼고 깨달은 점들을 아주 생생하게 담아냈다.

영선 지음 / 국판 / 304쪽 / 값 15,000원 / 운주사

마음과 영혼을 일깨우는 가르침!

풍경소리 5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영원히 다시 마주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 이 생을 소중하고 가치있게 살아가는 지혜!

글 풍경소리, 그림 조병완 / 컬러 / 136쪽 / 값 13,800원 / 자유문고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